

중국, 일대일로 주변 항구 집중적으로 투자

- 중국의 북극항로 개척 및 일대 일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
-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몇 개 항만 투자도 논의되고 있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
- 북극 안보에 대한 참여의 목적도 의심돼 향후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·안보적 이슈도 대두될 전망

- 중국이 지난 1년간 전 세계 항구·항만을 대상으로 밝힌 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전년(99억 7천만 달러) 대비 2배가 넘는 200억 달러(약 23조 원)에 달함
- 7월1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계 투자은행 그리슨스피크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표한 해외 항구 투자액 규모가 20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
- 중국의 일대일로 상에 위치한 항만 운영권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
- 중국 국유기업인 포리그룹은 북극항로인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항구와 시베리아 철도망에 투자한다는 계획 발표
-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4개 항구에 총 116억 달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탄중프리옥 확장에도 중국 자본 5억9천만 달러 투입 예정

자료 1 : 서울경제 (17.07.17.)

7/27 러-핀 정상회담 예정

- 향후 러시아와 핀란드와의 북극 관련 양자 간 협력에 대한 정보 파악 필요

- 핀란드 독립 기념일 100주년인 2017년 7월 27일, 핀란드 사본리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 예정
- 회담 내용은 무역, 경제, 문화, 환경 등을 포함한 양자간 협력 관계 및 국제 이슈 논의 예정
-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와 EU간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핀란드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 중임. 2017년 3월에 러시아에서 개최한 북극 컨퍼런스에서 양자간 정상회담을 한바 있으며 2016년 여름에도 정상회담을 가짐
-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였으며, 동부 지역에 러시아와 1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음

자료 2 : Yle UUTISET (17.07.19.)

그린란드 빙하에서 산업 오염 물질 분해 미생물 발견

-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(解氷)으로 축적된 독성 물질 확산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- 그린란드대학교 연구팀은 그린란드 빙하에서 발견되는 산업 오염 물질이 빙하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게놈에 영향을 미쳐 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 해빙
- 5개의 크라이요코나이트(cryoconite) 샘플을 채취해 미생물 균집을 살펴본 결과 PCBs, PAHs, 수은 및 납 등 4가지 오염 물질에 노출된 특정 유전자를 발견. 그 중 유전자 진화로 인해 PCBs 및 PAHs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발견함
- 북극지방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오염 물질 분해가 느려 눈과 얼음에 축적되는 것이 원인임
- 따라서 일부 미생물의 오염 물질 분해 능력으로 인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독성 부산물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



그림 1. Microbes taken from Greenland's ice sheet show adaptation to industrial pollutants (Getty)

자료 3 : Arctic Now (17.07.13.)